

고준희양 친부·내연녀 첫 공판 열려

국민참여재판 거부 학대치사 혐의 부인 이씨, 일부 인정 김씨, 모두 인정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 고모(37)씨, 내연녀 이모(36)씨, 내연녀 모친 김모(62)씨의 첫 공판이 7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은 수의와 안경, 마스크를 쓴채 입장했다.

이날 공판의 처음과 끝에 참관을 위해 불려온 아동관련 단체 회원 및 시민 등 수십 여명이 “니들이 사람이냐”는 야유가 이어져 한때 소란스러웠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약화된 여론을 인식한 것인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람은 내연녀 모친인 김씨 한명뿐이었다. 고씨와 이씨는 여전히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치사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만 인정하며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제외한 혐의는



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7일 오전 전주지법 법정에서 친부인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가 재판관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인정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때를 쓴다는 이유로 등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하고 사랑한 준

희양을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께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아산에 암매장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까지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공판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삼민 기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전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일반인형 4개 종류(I형~IV형), 장애인형 및 산재형(I형~II형)으로 구분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는 전체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 전북도와 전주시에서 25%를 지원해 농업인들은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 제외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일부상품의 경우 84세)의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업 농업인으로 가입 시 재해사망 혹은 상해, 입원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채규남 기자

재난 없는 안전한 설 명절 만들기 시동

전주시, 안전유관기관·민간단체와 설맞이 민관합동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재난사고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7일 중앙동 오거리 광장에서 완산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자율방재단, 민간에달단을 비롯한 민간단

체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연휴 대비 안전문화 캠페인’을 했다.

이와 관련 오는 3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 있고 정밀한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팀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2,000여 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 대진단 기간 동안 시민들도 안전신고 및 제안을 위한 안전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남흥희 시민안전담당관은 “설 연휴 기간 중 전주시는 24시간 비상근무 관리체계를 가동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가정과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전북 선관위, 임실군수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조사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가 기부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접수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가 나섰다.

7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임실군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 선관위는 현재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난 것이 아닌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

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김진성 기자

설 연휴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약국·응급처치요령 등 소개

전주시보건소는 설 연휴기간 명절과 휴일, 야간 등 가까운 응급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달빛어린이 병원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해줄 것을 7일 권장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지도 위에 주변 병원과 약국을 표시해 주는 의료정보제공서비스로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조건에 따라 응급실·병원 등 원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설 연휴와 야간에 문을 연 응급의료기관을 알려주고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과 이용 가능 병상

수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돼 응급환자들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앱에는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와 응급처치요령도 소개돼 있어 만약의 응급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보건소장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설 연휴와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해 시민들의 효과적인 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로 검색,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 대회 개최

시, 5월 9일까지 접수

전주시는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 등 전주민의 인문정신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제2회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 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주소개-전주의 상징’ 코너에 게시된 ‘꽃심 전주’ e-book을 읽고 독후감을 응모하면 된다.

전주정신은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리며(대동) 삶의 여유와 멋을 잃지 않고(풍류) 사람의 도리와 의로움을 추구하며(올곧음) 창의적 미래를 열어가(창신, 創新)를 토대로 한 ‘한국의 꽃심’으로 시민 생활 속에 전주정신을 뿌리내리기 위해 알기 쉽게 스토리북으로 엮은 ‘꽃심 전주’를

제작하기도 했다.

응모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총 4개 부문이며 36개의 우수작에는 상장과 시상금도 주어질 예정이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머물고 싶고 누구나 한번은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사회적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의 문화, 지역성 속에서 도시민의 정체성을 찾아 시민과 공감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기간은 8일부터 5월9일까지이며 이메일(dodo8133@korea.kr), 우편(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평생교육과장)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편의점 점주 대상 강도질한 20대 구속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를 강도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7일 강도상해 혐의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1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길가에서 편의점 주인 A(30)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120만원을 든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가장 일했던 편의점 주인이 수급하는 시간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이유로 김씨를 구속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